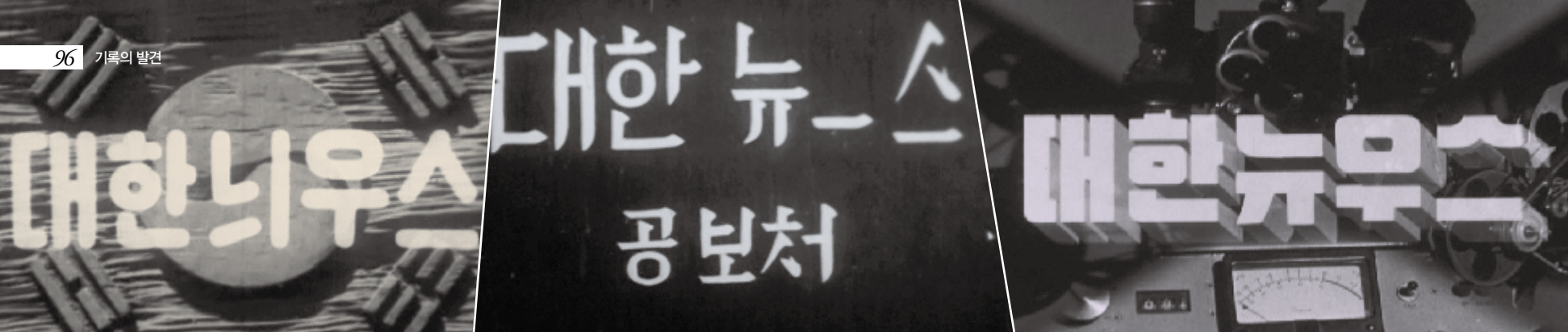




‘대한민국 영상실록’, 유실된 대한뉴스를 찾습니다

이미옥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지금은 2016 세계기록총회 기념 기획전시회를 위해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에 출장 전시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한국정책방송원 입구에는 독일 아리플렉스사와 아툰사의 35밀리 영화 촬영용 카메라가 내방하는 손님을 제일 먼저 맞이했다. 역사적인 정책 현장을 누비며 대한뉴스를 만들던 선배님들의 땀이 뻗 바로 그 촬영장비들이다. 대한뉴스가 조명을 받으면서 이 장비들이 박물관 가치를 인정받아 이번 전시회에 차출되는 영광을 안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닐 듯싶다.

되돌아보면 대한뉴스는 매주 1편씩 제작되었는데, 당시 녹음과정 과정을 수행했던 나는 밤을 새워가며 과정마다 최선을 다하시던 선배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대한뉴스를 녹음할 때 아나운서의 해설이 틀리면 처음부터 원고를 다시 읽어야 했기에 긴장감이 더했다. 작업이 늦어지면 밤을 꼬박 새워야 1편의 대한뉴스가 탄생되었고, 다음날 각 시도 공보실로 극장으로 해외공관으로 우리의 모습을 기록한 영상들이 전달되었다.

국립영화제작소는 3번에 걸쳐 청사를 이전하였다. 광화문 중앙청



01 중앙청 행사 동시 녹음 촬영모습(1960년대)
02 녹음실 모습(1960년대)
03 작화작업(1960년대)

지난 6월 30일 국가기록원과 한국정책방송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실된 대한뉴스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공동협약 문구에 관련 협력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사 내에 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바뀌면서 남산 영화진흥공사 2층으로 임시청사 완공 시까지 이전을 했고, 강남구 역삼동 청사는 중앙청에서 이전하면서 이듬해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기간 3년여에 걸쳐 완공되어 이전하였으며, 2014년 12월 1일 현재의 세종시 제2청사에 최종 안착하였다.

필름을 모체로 하던 KTV는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2004년 VCR 방송으로 업무방식을 전환하였고, 지금은 제작기법도 전자매체 변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여 HD 디지털 파일 방송을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한뉴스는 정책홍보에 대한 역기능이 지적되고 매체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폐지되었지만, 과거 시대를 돌아보기 위한 역사물이나 전시 행사에는 대한뉴스가 꼭 필요한 ‘약방의 감초’가 되었다. 가까운 예로 KTV가 대한뉴스 영상을 지원한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1400만 명의 관객이 우리 근현대사를 느끼고 읽을 수 있었으며, 최근 광화문에 소재한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일하는 해 1966 기획전’에도 KTV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뉴스 등의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코엑스에서 진행된 ‘정부 3.0 체험전’ 국가기록원 코너에서 대한뉴스가 소개되어 깊은 인상을 남긴 적이 있다. 고맙고 보람된 일들이다.

이토록 기록적으로 소중한 대한뉴스가 6·25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중의 정부 활동 등을 기록한 1~21호가 유실되어 자료의 완전성이 채워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해 오던 터였다. 때마침 지난 6월 30일 국가기록원과 한국정책방송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실된 대한뉴스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공동협약 문구에 관련 협력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반가운 일이다.



● ● '대한민국 영상기록, 대한뉴스' 전시회 개막식에서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는 주요 내빈들



● ● 국가기록원 - 한국정책방송원 업무 협약식 모습

‘시청각기록물 생산·발굴·보존 등 기록화 사업에 관한 공동기획 및 진행’이 그것이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이 ‘협약을 위한 협약’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던 중, 대한뉴스 찾기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더욱 다행스러운 일은 이번에 국가기록원에서 대한뉴스 기록 찾기 캠페인을 준비하려고 공문 등 자료 확인 과정에서 유실된 대한뉴스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법 확인했다 하니 감개무량하다. 모쪼록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록을 담당하는 기관인 국가기록원과 한국정책방송원간의 협력이 이루어짐은 물론 여러 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 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땀을 흘리는 기록인들의 노고에 한국정책방송원의 자료 담당으로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갈채를 보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에서 국가적으로 추진되었던 기록문화사업인 팔만 대장경이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의 유산을 전수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성공한 바 있다. 대한뉴스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작성되고 보존되는 오늘날의 수많은 공공기록은 후세에 매우 소중한 사료이며 문화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덕혜옹주’의 엔딩 크레딧에서 한국정책방송원이 인용된 것은 공공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듯하여 감사함이 느껴졌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고맙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공

공자료를 사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을지연습 기간과 겹쳐 있다. 을지연습을 통해 전쟁을 대비하듯, 전쟁으로 소실된 자료를 찾는 일에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 까.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유실된 자료의 발굴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한편으로 소중한 공공기록에 대한 중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생긴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6.25 전몰장병들의 유해 발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조국에 대한 사랑이 새삼 일깨워졌듯 유실된 대한뉴스 발굴 사업에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필자 소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과정(방송영상 전공) 졸업하고,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영화녹음, 영상종합편집 감독, 현재 영상 콘텐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 「대한민국 영상기록, 대한뉴스」 기획전시 전경

